

전세계 향해 선포한 영생의 진리

세계신종교연구센터(CESNUR)와 라발대학교 공동 주최 캐나다 국제학술대회에서

신종교연구센터(CESNUR, Center for Studies on New Religions)는 6.16부터 18까지 3일간 캐나다 퀘벡시 소재 라발대학교(Universite Laval)에서 2022년 국제대회 '세계화시대의 종교적 다원주의'를 개최하였다. CESNUR는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의 2명의 교수들에 의해 1988년 설립된 공공 비영리단체로서 현재는 그 단체인 마시모 교수 주도로 매년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종교적 소수자, 새로운 종교 운동, 현대의 난해한, 영적, 영리적 학교, 그리고 새로운 종교 의식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 간의 국제적 네트워크로서 새로운 종교의식의 분야에서 학술적 연구를 촉진하고 책임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 팬데믹 후 2년 만에 처음 개최된 세계신종교연구센터 주최 학술대회(세션8)를 마치고 함께한 발표자들 (좌로부터 김중석 박사, 안병천 회장, 한강현 회장, 세션8의 좌장을 맡은 에드워드 아이런 교수, 그 뒤쪽은 강하나 국제이사, 신순이(강하나 이사의 모친), 일본신종교 연구자 Eriko Kawanishi, 호주 국립대 교수 David W. Kim, 김영숙 협회장)

세계화 시대의 종교 다원주의

CENSUR의 올해 학술대회의 주제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종교의 다원주의'에 대한 것으로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종교현상과 종교박해의 현실, 그리고 인류 미래에 대한 하늘의 새로운

계시나 경고, 유행이나 역사현상, 그리고 심령사건 등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슬성령의 강령현상과 새로운 율법 등 미래종교에 관한 참가자들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승리제단 세션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주목을 받았는데 국제신인류문화학회 한강현 회장을 비롯해

여 한국메시아운동사연구소 김중석 소장, 세계영생학회 안병천회장, 국제신인류문화학회 강하나 국제이사, 성령과학연구협회 김영숙 회장이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논문발표자 김중석박사는 "육신 영생을 주장한 승리제단 창시자가 보광한

이후 승리제단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로 논문발표를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4명의 발표자가 승리제단에 관련된 여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혁명적이고 특이한 종교현상들을 소개하였다.

승리제단 진리 발표

안병천 회장은 "이간자에 의한 종교혁명으로써의 영생학: 승리제단의 신과학(神科學)과 체시주의사상을 중심으로", 강하나 국제이사는 "마음과 피의 원리에 의한 생로병사 해탈에 관한 비결", 김영숙협회장은 "이간자 구세주의 5대 공약과 감추었던 만나에 관하여", 한강현 학회장은 "이간자 구세주에 의한 종교혁명과 승리제단의 비전에 관하여"를 차례대로 발표하였다. 승리제단은 전 세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구세주 조희성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바 신종교연구센터(CESNUR)에 승리제단 세션이 분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추후 진리를 전세계로 발표하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길 기대해 본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34>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도 이간자를 본받아 빨리 빨리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으로 이루어져야, 이 모든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깊고도 깊은 하늘의 비밀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다. 표현이 되려야 될 수가 없다. 각자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야 그때 환히 알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인 되는 비결을 쉽고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식은 죽 먹기인 것이다. 하나님이 되는 비결은 어렵지 않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발행인 칼럼 의인이 많이 나올수록 죄악이 빨리 소멸된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단면역(herd immunity)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집단면역이란 집단 내에서 면역을 가진 개체의 수가 많아질수록 면역력이 없는 개체가 감염될 확률은 낮아진다는 말이다. 집단면역(집단 효과, 공동체 면역, 사회 면역 등)은 집단의 대부분이 감염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졌을 때, 감염병의 확산이 느려지거나 멈추게 됨으로써 면역성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마음은 파동으로서 체외로 방사된다

집단면역은 영생학에도 원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즉 일정한 숫자의 의인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면 나머지 죄인들이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죄도령이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 해당하는 진짜 주인공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의 16절과 17절에서는 구원받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는 자가 곧 또 다른 보혜사요 진리의 영인데,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조희성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맞이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와 연관된 구체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의 실상을 파헤치면 예수 시대를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내는 데 성공해야만 비로소 온전한 보혜사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여 구원의 문에 이르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구원받는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의 이면(裏面)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든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다는 반대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참 구세주는 단상에서 "이 세상에 학문도 없었다. 이 세상에 종교도 없었다"라고 필연적으로 외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학문이고 진리를 구현하는 것이 종교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는 고로 지금까지 죽지 않는 영생의 학문을 논한 자가 없었고 영생을 구현한 완성이 없었던 것을 보아 이 세상에는 참 학문과 참 종교가 없었다는 말이 증명되는 것이다.

구세주 의인을 배출하는 승리제단

마음은 파동으로서 외부에 영향을 미친다. 구세주 조희성님은 의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이 점점 소멸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인 300명만 나오면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고 하셨다. 이런 점에서 승리제단 교인들은 일반적인 종교 단체의 교인들과 완전히 다르다. 이곳은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구세주 의인을 배출하는 곳이므로 자신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명심하고 생활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하나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신약성경 사복음서(四福音書)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말한다. 여기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한데 묶어 공관복음이라 부른다. 공관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요한복음은 <영생과 거듭남>을 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신약성경에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즉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용어를 사용한 성경 기자(記者)는 오직 사도 요한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차림 구세주를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진리의 영>이 되신 보혜사 성령이 친히 가르쳐주시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비결'을 듣고 실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되신 이간자 구세주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승리제단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관한 단락(요한복음 14-17장)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 있다고 하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한다. 생경(生經)하게 느껴지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시작하여 17장까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보혜사와 관련된 내용이 끼워넣기식으로 슬며시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돈 전대를 맡은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는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곧장 점프하여 18장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관한 단락은, 마귀가 알게 역사를 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모르게 숨겨져 역사하시는 하나님 입장에 서서 읽어야, 하나님께서 육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내하시고 키우신 참 구세주가 곧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조희성 주님이 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관한 단락(요 14-17장)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30절이며, "내 뒤에 구세주가 되는 이 세상 임금이 오신다"라고 예수 스스로 이실직고한 것으로 예수 자신은 구세주가 아니라고 실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관한 단락(요 14-17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라는 인칭 용어를 모조리 지워버리고 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숨기신 경령 즉 마귀가 모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예수의 가면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 기자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였다면, 신약성경에 요한복음이 예수의 추종자들에게 의해서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단하는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외경(外經)으로도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정도령이요 참 구세주

그럼 요한복음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관한 단락(요 14-17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언급된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은 진짜 구세주가 할 말인데 자격도 되지 않는 예수가 먼저 나와 가로채서 사용한 점이다. 참 구세주는 선악과 사건 이후 6천 년 만에 이 세상에 오시는 것으로 예정된 고로, 4천년 만에 온 예수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이니라"라는 성경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도적과 같고 강도와 같은 가짜 구세주는 길이 될 수 없고 진리도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다. 동양 최고의 예언서 격암유록에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정도령'이라는 대명사로 나오는데, 정도령(正道令) 또는 정도령(正道靈)이라는 한자 속에 바를 정(正)자는 '진리'를 의미하며 길 도(道)자는 글자 그대로 '길'을 의미하며 하여금 령(令)자는 '명령'이라 함은 의미로 목숨 즉 '생명'을 내포하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신령 영(靈)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한다. 따

라서 남사고 선생의 예언대로 20세기 후반에 출현한다는 구세진인(救世眞人) 정도령이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 해당하는 진짜 주인공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의 16절과 17절에서는 구원받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는 자가 곧 또 다른 보혜사요 진리의 영인데,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조희성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맞이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와 연관된 구체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의 실상을 파헤치면 예수 시대를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내는 데 성공해야만 비로소 온전한 보혜사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여 구원의 문에 이르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구원받는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의 이면(裏面)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든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다는 반대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참 구세주는 단상에서 "이 세상에 학문도 없었다. 이 세상에 종교도 없었다"라고 필연적으로 외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학문이고 진리를 구현하는 것이 종교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는 고로 지금까지 죽지 않는 영생의 학문을 논한 자가 없었고 영생을 구현한 완성이 없었던 것을 보아 이 세상에는 참 학문과 참 종교가 없었다는 말이 증명되는 것이다.

마음의 불꽃이 있을 때면... 영생의 진리를 이곳에서 찾아보세요. 진지아름TV